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가 숨 쉬는 우리 고장’ 시간입니다. 올해는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이 된 해로, 이번 시간에는 강화 지역 향토 사학자이신 ○○○ 교수님을 모시고 강화 지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A]

사학자: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강화도조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강화도조약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학자: 네. 방금 강화도조약이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명칭은 아니지만 사실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입니다. 외국과 맺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약으로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기도 합니다. [B]

진행자: 치외법권이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학자: 예, 맞습니다. 조일수호조규에 따르면 개항장 내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관원이 재판하도록 협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역사의 아픈 장면 중의 하나이지요. 하지만 강화는 이런 아픈 역사만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진행자: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학자: 강화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40년 가까이 항쟁했던 고려의 임시 수도였습니다. 외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

진행자: 그 시기의 역사적 유물이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이지요?

사학자: 예, 팔만대장경판은 현재 국보 제32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에서 제작되었습니다. [D]

진행자: 그렇군요. 강화에는 마니산이 유명한데, 그곳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나요?

사학자: 강화의 마니산은 단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를 올리던 참성단을 보면, 그곳은 우리나라의 개국과 함께한 역사적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화의 역사는 단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사 시대에 막강한 지배층을 형성했던 청동기인들의 고인들이 강화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본다면 강화는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강화를 ‘지붕 없는, 역사의 박물관’이라고들 이야기하나 봅니다. 다음으로는 강화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

1.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진행자는 화제 선정의 배경을 밝히며 대담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② [B]: 사학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C]: 사학자는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화제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④ [D]: 사학자는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며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E]: 진행자는 앞선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한국사 발표 과제는 다 했어?

학생 2 응, 강화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볼래? 과제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부제는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

부제:

발표일: 2016. 9. 1.

발표자: ○○○

- ① ㉠: 역사의 살아 있는 증인, 강화
㉡: 선사, 고려, 조선에 걸친 강화 역사의 흔적 찾아보기
- ② ㉠: 우리나라 전략적 요충지, 강화
㉡: 외세에 맞선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 배워보기
- ③ ㉠: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고장, 강화
㉡: 선사 시대 집터를 중심으로 옛 유적 답사하기
- ④ ㉠: 역사의 선율이 흐르는 고장, 강화
㉡: 문화 유적의 가치를 중심으로 강화에 대한 자긍심 느껴보기
- ⑤ ㉠: 우리 민족의 저항과 긍지의 땅, 강화
㉡: 강화도조약을 중심으로 근대 조약의 역사 둘러보기

[3~5] 다음의 (가)는 발표 준비를 위한 학생들 간의 대화이고, (나)는 수업 중 '학생 1'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이번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표하는 과제 있잖아.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학생 2: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새 우편 번호 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그건 어떨까?
학생 1: 괜찮은 생각이다. 그런데 새 우편 번호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하지?
학생 2: 그에 대한 정보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거야.
학생 1: 고마워. 덕분에 발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04383', 이 숫자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우편 번호입니다. 기존의 6자리 우편 번호가 최근 새롭게 5자리로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5자리 숫자 구성의 의미에 대해 아시나요? (모른다는 대답을 들은 후) 2015년 8월 1일부터 새 우편 번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숫자의 구성 의미는 물론이고 바뀐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편 번호를 왜 바꾸었을까요? (청중을 둘러보고) 그 이유는 바로 '도로명 주소'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를 작은 경계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5자리로 구성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를 새 우편 번호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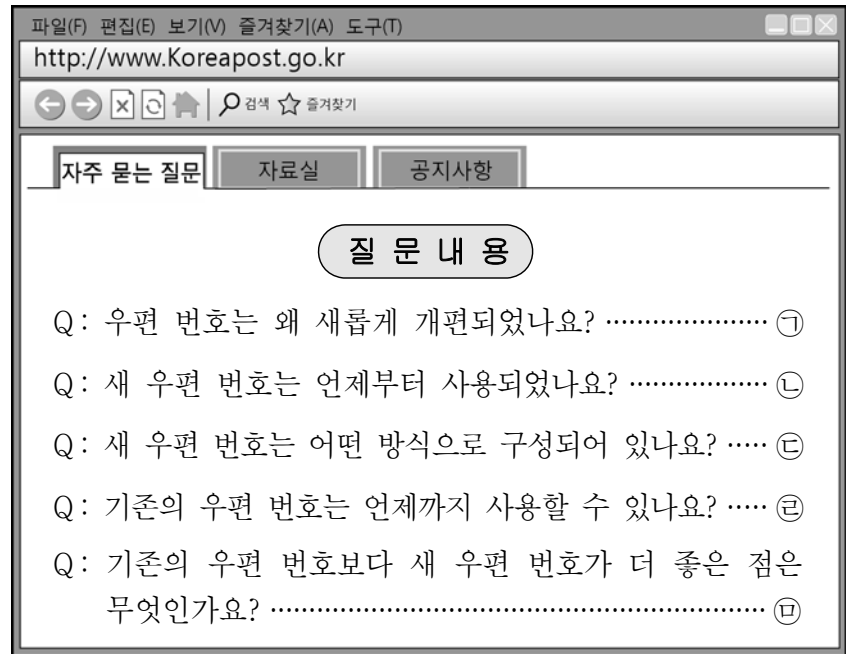
그럼 새 우편 번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 주며)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우편 번호 중 앞 3자리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00부터 99까지 부여된 일련번호를 나타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앞 3자리가 043~044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04383'이라는 우편 번호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구 내에서 84번째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새 우편 번호를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 우편 번호를 홍보하기 위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 가구에 우편 번호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건물의 번호판에 새 우편 번호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해 새 우편 번호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우편 번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시계를 확인하며) 원래는 인터뷰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우편 번호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번호의 자릿수가 줄어들어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 우편 번호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졌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가)에서 '학생 2'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관심을 고려하여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면서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경험을 환기하며 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4. 다음은 '학생 1'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색한 인터넷 게시판의 일부이다. ㉠~㉤ 중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 다음의 항목을 바탕으로 (나)를 평가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평가항목	
○ 정보 전달의 목적에 맞는 화제를 선정하였는가?	㉠
○ 발표 내용에 적합한 매체 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 발표에 활용한 매체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	㉢
○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	㉣
○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① ㉠: 청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화제를 선정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 ② ㉡: 화제와 관련된 지도와 사진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군.
- ③ ㉢: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군.
- ④ ㉣: 기존의 발표 계획을 수정하며 발표 시간을 조절하고 있군.
- ⑤ ㉤: 발표한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을 통해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폐전자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이에 관한 글을 쓰기로 함.

개요

I. 처음
○ 도시 광산의 개념 소개
○ 도시 광산 운영의 어려움 제시㉠

II. 중간
○ 도시 광산의 필요성
- 천연 광산보다 높은 효율성㉡
- 희소금속의 확보 수단㉢
○ 도시 광산의 활성화 방안
- 폐전자제품에서의 금속 추출 기술 개발㉣
- 폐전자제품 수거에 적극 동참㉤
- 폐전자제품 수거 서비스 홍보

III. 끝
○ 도시 광산의 필요성 요약 _____
○ 폐전자제품 수거에 대한 관심 촉구 _____ [A]

초고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원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 광산은 폐전자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하여 자원으로 되돌리는 재활용 산업이다. 그런데 도시 광산이 원료인 폐전자제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도시 광산은 천연 광산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 동일한 무게의 원료에서 더 많은 양의 금속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광석 1톤에서는 약 5g의 금이, 같은 양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400g의 금이 추출된다. 또한 도시 광산은 몰리브덴, 니켈 등과 같은 희소금속의 확보 수단이 된다. 희소금속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적은 금속을 말하는데 가격이 높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불안정하다. 도시 광산은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 광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먼저, 도시 광산의 원료가 되는 폐전자제품 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폐휴대전화, 고장 난 액정 모니터나 PC 등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집 근처 관공서에 설치된 폐전자제품 수거함을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SNS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것이다.

_____ ㉠ _____

6. '개요'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7.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음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활용 자료

(가) 전 세계 자원의 채굴 가능 연도 (○○환경연구원, 2014년)

(나) 연간 발생하는 폐전자제품 정보 (○○연구소, 2014년)

	휴대전화	액정 모니터	PC
희소금속 함유량(g/대)	11.5	344.0	61.8
폐전자제품 발생량(대)	18,275,000	3,361,000	3,790,000
폐전자제품에 함유된 희소금속의 가치	70억 원	214억 원	60억 원

- ① (가): 채굴 가능한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을 첫째 단락에 추가하여 도시 광산 운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② (가): 몰리브덴과 니켈의 고갈 시기를 둘째 단락에 추가하여 도시 광산에서 추출하는 희소금속의 종류를 늘려야 함을 강조한다.
- ③ (나): 폐전자제품에 함유된 희소금속의 경제적 가치를 둘째 단락에 추가하여 도시 광산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 ④ (나): 휴대전화의 희소금속 함유량이 가장 적다는 것을 셋째 단락에 추가하여 폐휴대전화의 발생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 ⑤ (가), (나):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폐전자제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셋째 단락에 추가하여 전자제품에 희소금속 함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8. '개요'의 [A]에 따라 작성한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시 광산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관공서에서는 폐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 ② 도시 광산은 자원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산업이다.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③ 도시 광산을 통해 금속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희소금속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광산의 원료인 폐전자제품의 수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④ 폐전자제품은 쓰레기가 아니라 도시 광산의 원료가 된다. 많은 장점을 지닌 도시 광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폐전자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 ⑤ 희소금속은 전자제품에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높고 공급이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 광산이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9~10] 다음은 한 학생이 진로 체험 활동을 하고 쓴 보고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어릴 적부터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다. ‘캐릭터 디자이너’가 꿈인 나는 아침 독서 시간마다 책은 읽지 않고 ㉠ 번번히 연습장에 만화를 그리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께서 어느 날, ㉡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에도 선생님께서 여러 번 독서를 권장하시면서 읽을 만한 책도 ㉢ 소개시켜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만화를 그리며 아침 시간을 보냈다.

지난 달, 진로 체험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를 방문했다. 마침 역사 만화 속 캐릭터 개발 회의가 있어 참관하게 되었는데, 디자이너들의 해박한 지식에 여간 ㉣ 놀랐다. 디자이너들이 삼국 시대의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 특정 위인의 일대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캐릭터를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한반도의 세력을 다투던 시대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농경생활을 했던 때이다. 그림만 잘 그리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을 보니 다양한 분야의 지식까지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디자이너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였다. ㉥ 그분께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소양이 있어야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풍부한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애니메이션 스토리 개발을 위해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침 독서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동안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번 진로 체험을 계기로 독서는 내 꿈을 열어 주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9. ㉠과 ㉥을 중심으로 파악한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과 연결하여 글의 주제를 드러낸다.
 - ② 타인의 삶을 탐색하게 해 준 ㉠에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을 추가하여 글의 의도를 강조한다.
 - ③ 참신한 표현인 ㉠과 상투적 표현인 ㉥의 의미상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인다.
 - ④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을 대응시켜 주장의 논리성을 강화한다.
 - ⑤ 과거의 갈등을 소개한 ㉠을 현재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 ㉥으로 바꾸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10. ㉠~㉥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번번이’로 고친다.
 - ② ㉡: 사동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소개해’로 고친다.
 -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놀라지 않았다.’로 고친다.
 - ④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⑤ ㉥: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11.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표준 발음법]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깍아’는 [깍가]로 발음해야 한다.
- ② ‘ 읊어’는 [읊퍼]로 발음해야 한다.
- ③ ‘여덟을’은 [여덜블]로 발음해야 한다.
- ④ ‘덜이다’는 [더피다]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부엌이’는 [부어키]로 발음해야 한다.

12.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 기>

㉠ 관형사, ㉡ 대명사, ㉢ 부사 중에는 ‘이, 그, 여기, 이리, 그리’ 등과 같이 ‘지시성’을 지닌 단어들이다. 이들은 지시성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파악해야 한다.

- ㉠ 이 사과를 맛있게 생겼다.
- ㉡ 그 책 좀 나에게 빌려줄 수 있어?
- ㉢ 여기가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 ㉣ 이리 가까이 오게.
- ㉤ 그리 물건을 보내겠습니다.

- | | | | |
|---|------|------|------|
| | ㉠ | ㉡ | ㉢ |
| ① | a | b, c | d, e |
| ② | a, b | c | d, e |
| ③ | b, c | d, e | a |
| ④ | b, d | e | a, c |
| ⑤ | c, d | a | b, e |

13. 다음과 같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문장에서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런데 같은 형태의 서술어라도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문장 성분을 생략해 봄으로써 이를 파악할 수 있다.

탐구자료 [A]

- 콩쥐가 옷을 예쁘게 만들었다.
-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탐구활동

문장 성분을 생략해 보며,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인지를 파악한다.

◦ 콩쥐가 옷을 예쁘게 만들었다.
☞ ‘콩쥐가’, ‘옷을’, ‘예쁘게’를 각각 생략해 본다.

◦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를 각각 생략해 본다.

탐구결과

서술어 ‘만들었다’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에 따라 두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세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적용자료 [B]

- 친구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 철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 ① [A]에서 ‘콩쥐가’와 ‘어머니는’은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이므로 꼭 필요한 성분이겠군.
- ② [A]에서 ‘옷을’과 ‘아들을’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므로 생략할 수 없겠군.
- ③ [A]에서 ‘예쁘게’는 ‘의사로’와 달리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겠군.
- ④ [B]에서 ‘친구는’과 ‘손을’을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잡았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겠군.
- ⑤ [B]에서 ‘많이’는 생략할 수 없는 문장 성분이므로 ‘잡았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겠군.

14.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힘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 ② 무엇을 하던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 ③ 오늘 소풍 가는 날인데 비가 와서 어떻게.
- ④ 네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래.
- ⑤ 넉넉치 않은 살림이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자.

1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할 때,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할 때 쓰인다. 그런데 담화 상황에 따라 의문문과 청유문 모두 ㉠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 ① A: 애들아, 영화 좀 보자.
B: 알았어. 떠들어서 미안해.
- ② A: 환기가 필요하구나. 창문 좀 열자.
B: 네. 알겠습니다.
- ③ A: 잠깐,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더라?
B: 너 혼자 거기서 뭐하니? 빨리 나와.
- ④ A: 방 청소를 해야 하는데, 좀 비켜줄래?
B: 네, 엄마. 바로 나갈게요.
- ⑤ A: 기사님! 저 신호등 앞에서 세워 주시겠어요?
B: 네, 저기에 세우겠습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 잣 ㉠ 얏 ㉡ 보민 플라 나모썸
[현대 국어] 성(城)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

[중세 국어] 烽火(봉화) | ㉢ 석드를 ㉣ 니세시니
[현대 국어]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중세 국어] 첫소리를 ㉤ 쁘느니라
[현대 국어] 첫소리를 쓰느니라.

- ① ㉠을 보니 ‘ㅅ’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② ㉡을 보니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그 형태를 밝혀 적었군.
- ③ ㉢을 보니 ‘드를’은 현대 국어 ‘달을’과 달리 모음조화를 지켜 표기하였군.
- ④ ㉣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을 사용하였군.
- ⑤ ㉤을 보니 첫 음절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썼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칸트는 ‘인간(人間)’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인간성을 ‘인격(人格)’이라 불렀고,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 보았다.

셸러는 칸트의 이러한 견해가 인간의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만을 강조하였으며, 인간의 개별성을 간과하고 인간을 몰개성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인격 개념을 제시하였다. 셸러는 인간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인격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감정작용의 통일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셸러의 인격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감정에 관한 셸러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셸러는 가치가 경험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형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가치에는 객관적인 위계질서가 있는데 재화, 도구처럼 유용함과 관련된 가치는 낮은 가치이며, 도덕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높은 가치라고 구분하면서 이러한 가치의 위계질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셸러는 감정에도 객관적인 위계질서가 있으며, 낮은 감정은 그에 대응하는 낮은 가치를, 높은 감정은 높은 가치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인격은 이러한 감정작용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여 선(善)을 실현할 수도 있고, 또 낮은 가치를 선택하여 악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셸러에 의하면 이처럼 가치의 위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감정이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이 처한 내외적 상황에 따라 그러한 선천적 감정의 지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셸러는 가치 선택의 순간에서 내외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선(善)이고, 이렇게 인간을 선(善)으로 이끄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인간에게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셸러는 미움이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미움으로 인해 인간은 가치들 간의 위계를 잘못 파악하는 가치 왜곡에 빠지거나, 더 높은 가치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가치 맹목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셸러는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므로 인격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리고 성숙한 인격이란 사랑을 통해 항상 보다 높은 가치를 선택하여 선(善)을 실현하는 감정작용이라 보았다. 따라서 셸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감정을 통해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덕 교육의 토대를 정립했다.

17.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인격에 대한 칸트의 견해
- ② 셸러가 말하는 가치의 특징
- ③ 셸러가 말하는 도덕 교육의 한계
- ④ 셸러의 논의에 나타난 감정의 역할
- ⑤ 칸트의 인격 개념에 대한 셸러의 관점

18. 윗글에 나타난 셸러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격과 감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 ② 감정과 가치는 모두 객관적인 위계질서를 지닌다.
- ③ 가치 왜곡은 가치의 위계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 ④ 미움의 감정은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다.
- ⑤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인격의 차이가 나타난다.

19. 윗글의 셸러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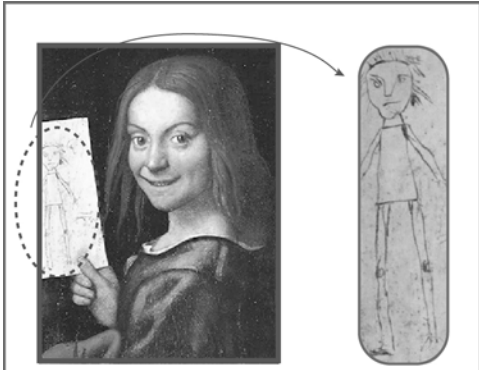
—<보 기>—

영희가 사는 동네에는 A와 B, 두 개의 커피 전문점이 있다. A는 영희의 집에서 가깝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제3세계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생산된 원두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B는 A보다 거리도 멀고 가격도 비싸지만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한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 영희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① 영희가 커피 전문점 A에서 커피를 구입한다면 영희는 낮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겠군.
- ② 영희가 비싼 가격에 상관없이 커피 전문점 B를 선택한다면, ‘선(善)’을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영희가 커피 전문점 A를 선택하는 것도, B를 선택하는 것도 모두 ‘인격’의 감정작용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영희가 고민 없이 커피 전문점 B가 아닌 A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이 선천적으로 없기 때문이겠군.
- ⑤ 영희가 갈등을 하지 않고 커피 전문점 A가 아닌 B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높은 감정’이 이끈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세 회화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아이 특유의 신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그저 어른을 작게 그린 ‘축소된 어른’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런 면에서 현대회화의 작가들은 16세기 초 카로토의 <그림을 든 빨간 머리 소년>이라는 작품



[A] 카로토, <그림을 든 빨간 머리 소년> [B]

에 주목한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년은 아이 특유의 신체적 특성과 장난기 머금은 웃음을 통해 아동만의 매력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아이를 아이답게 묘사했다는 점 외에, 아이가 그린 그림이 소재로 쓰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

다. 아주 오랫동안 아이가 그린 그림이 서구 회화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에는 작품 속 소년이 그린 것처럼 보이는 그림 [B]가 등장하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B]는 그림 속 소년보다는 더 어린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즉, [B]는 진짜 소년이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화가가 생각하는 아이의 그림이라는 얘기다. 카로토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중시했던 당시 르네상스 회화의 경향과는 다르게, 상상한 것을 꾸밈없이 순수하게 드러내는 아이들의 표현 방식을 따랐던 것이다. 그 이유는 카로토가 르네상스 이래로 내려오는 사실적 재현이 유일한 가치가 아님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실물을 꼭 닮게 그리는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고 19세기에 카메라까지 발명되면서, 도처에서 사물을 꼭 빼닮은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당시 화가들에게는 위기였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로 선택한 방식이 근원으로 ㉠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몇몇의 현대 화가들은 사회화를 겪지 않은 아동을 상상력과 잠재력의 근원으로 보고, 유년기의 화풍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것이다.

현대 화가들이 이처럼 유년기의 화풍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은 결코 사실적 묘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미술사를 ㉡ 사실적 재현 기술의 발전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년기 화풍이 미숙함의 산물일 수 있다. 하지만 미술사를 움직이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한 미술사학자 알로이스 리글처럼 미술사를 ㉢ 상이한 ‘표현 의지’들이 교차하는 장(場)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유년기 화풍이 어른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술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현대 화가들이 유년기 화풍에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회화의 과제가 외부의 ‘재현’에서 내면의 ‘표현’으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 원근법처럼 대상을 ‘보이는 대로’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오히려 ‘표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느끼는 대로’ 그리는 데 필요한 것은 학습되지 않은, 순수함과 솔직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화가들의 시도는 ‘퇴화’가 아니라, ‘창조적 역행’이라 할 수 있다.

20.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세 회화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특유의 신체적 특징이 충실히 반영된 모습이었다.
- ② 중세 시대부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서구 회화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었다.
- ③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은 외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 ④ 사진의 등장으로 당시의 화가들은 실물을 꼭 닮게 그리는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다.
- ⑤ 현대 화가들은 재현 기술의 발전을 위해 사회화를 겪지 않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주목하였다.

21. ㉠과 ㉡의 입장에서 <보기>의 작품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화가 김점선(1946~2009)의 도롱뇽알 그림 연작 중 하나이다. 화가는 아이의 그림 연습장을 우연히 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 ① ㉠은 <보기>의 작품을 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미숙하다고 볼 것이다.
- ② ㉠은 <보기>의 작품을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기법을 강조한 것으로 볼 것이다.
- ③ ㉡은 <보기>의 작품을 ‘유년기의 화풍’으로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것으로 볼 것이다.
- ④ ㉡은 ‘느끼는 대로’ 그린 화가의 표현 의지가 <보기>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 ⑤ ㉡은 ‘재현’ 능력보다는 화가 내면에 있는 순수함과 솔직함이 <보기>의 작품에 담겨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22.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기계가 잘 돌아간다.
- ②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 ③ 우리는 돌아가면서 점심을 산다.
- ④ 일이 바쁘게 돌아가서 정신이 없다.
- ⑤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자.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창업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창업을 고려할 때, 회사를 다닐 때와 창업 후의 이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봉 3,600만 원의 직장인 철수가 제과점을 개업한 사례를 들어 이를 알아보자.

총수입		1억 원
명 시 적 비 용	재료비	1,000만 원
	직원 인건비	3,500만 원
	대출 이자	500만 원
	세금	400만 원
회계학적 이윤		4,600만 원

2014년, 철수는 여유 자금 2억 원에 1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매장에 제과점을 개업했다. 1년 동안, 철수의 총수입과 제과점 ㉠ 운영을 위해 직접 소비한 명시적 비용은

<표>와 같다.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회계학적 이윤은 4,6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철수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이윤이 늘어난 것일까?

창업 후의 정확한 이윤을 알기 위해서는,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 '회계학적 이윤'보다는 ㉢ '경제학적 이윤'을 따져보아야 한다. 경제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뺀 금액이다.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 때문에 포기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철수의 경우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1년 동안 벌 수 있었던 3,600만 원과 본인 소유의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받을 수 있는 임대료 1,000만 원, 또 제과점을 열기 위해 사용한 자본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 600만 원(예금금리 3% 가정)을 합한 금액인 5,200만 원이 암묵적 비용에 해당할 것이다. 철수네 제과점은 회계학적 이윤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철수가 ㉣ 간과한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학적 이윤으로는 600만 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또한 '손익분기점'을 사용하여 이윤을 ㉤ 파악할 수도 있다. 손익분기점이란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총수입과 투입된 총비용이 같아 손실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다. 손익분기점은 고정비와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의 비율을 활용하여 계산하는데, 고정비는 직원 인건비와 가게 임대료, 대출 이자, 세금과 같이 매출과 관련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변동비는 재료비처럼 매출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총수입이 늘거나, ㉥ 투입된 총비용이 줄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이처럼 손익분기점은 총수입과 총비용과의 관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익분기점 역시 암묵적인 비용이 ㉦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고려할 때는 경제학적 이윤과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23.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외적인 현상을 통해 경제학적 이론의 형성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하나의 경제학 관점으로 다양한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경제학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⑤ 여러 사례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새로운 경제학적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24.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수입의 변화가 없을 때, 명시적 비용이 줄면 ㉠은 늘어난다.
- ② ㉡에는 제과점 운영을 위해 직접 소비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 ③ ㉠과 달리 ㉡에는 암묵적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에도 항상 이익이 발생한다.
- ⑤ 정확한 이윤을 알기 위해서는 ㉡보다는 ㉠을 확인해야 한다.

25. <보기>는 철수의 2015년 결산 자료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2015년 제과점의 총수입		1억 원
명 시 적 비 용	재료비	800만 원
	직원 인건비	3,500만 원
	대출 이자	500만 원
	세금	400만 원
회계학적 이윤		4,800만 원

※ 암묵적 비용은 2014년과 동일함.

- ① 2015년의 손익분기점은 2014년에 비해 높아졌군.
- ② 2015년에도 경제학적 이윤으로는 손실을 보았군.
- ③ 2014년과 2015년에 고정비로 지출한 금액은 동일하군.
- ④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회계학적 이윤이 높아진 것은 변동비가 줄었기 때문이군.
- ⑤ 2015년의 직원 인건비, 대출 이자, 세금은 제과점의 총수입과 관련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였군.

2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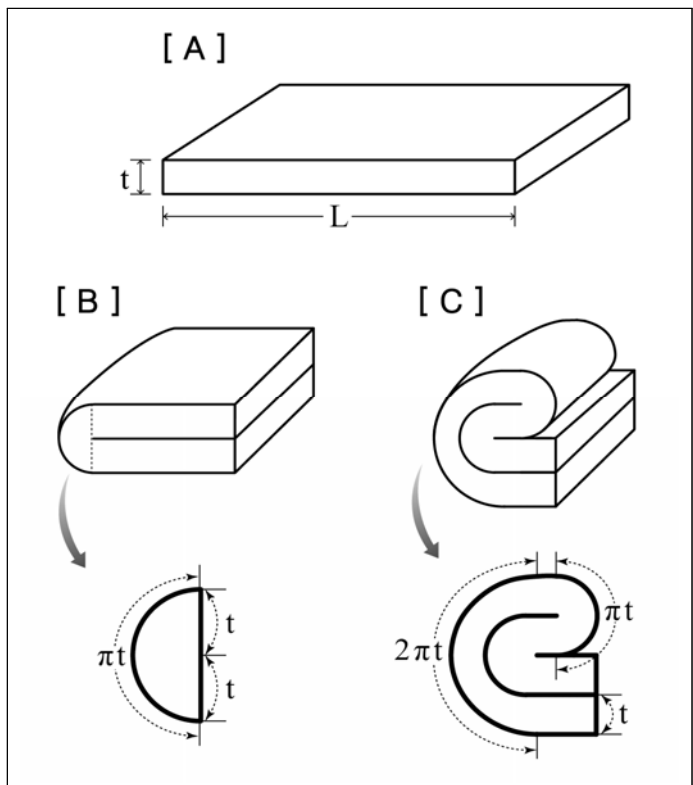
- ① ㉠: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
- ② ㉡: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 ③ ㉢: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 ④ ㉣: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를 밖으로 내보냄.
- ⑤ ㉤: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장의 종이를 반으로 계속해서 접어 나간다면 과연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을까? 얼핏 생각하면 수없이 접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종이를 접는 횟수에 따라 종이의 넓이와 두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종이를 한 방향으로 접을 경우, 한 번, 두 번, 세 번 접어나가면 종이의 넓이는 계속해서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두께는 각각 2겹, 4겹, 8겹으로 늘어나 두꺼워진다. 이런 식으로 두께 0.1mm의 종이를 10번 접으면 1,024겹이 되어 그 두께는 약 10cm나 되고, 42번을 접는다면 그 두께는 439,805km로 지구에서 달에 이를 수 있는 거리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때 종이를 접으면서 생기는 종이의 두께는 종이의 길이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종이 접기의 횟수 역시 무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종이를 접는 횟수에 따라 종이의 길이와 종이가 접힌 모서리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반원의 호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A]처럼 종이의 두께가 t 이고 길이가 L 인 종이를 한 번 접으면, [B]처럼 접힌 모서리 부분이 반원을 이루게 된다. 이때 이 반원의 반지름 길이가 t 이면 반원의 호 길이는 πt 가 된다. 결국 두께가 t 인 종이를 한 번 접기 위해서는 종이의 길이가 최소한 πt 보다는 길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께가 1cm인 종이를 한 번 접으려면, 종이의 길이가 최소 3.14cm보다는 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이를 한 방향으로 두 번 접는 경우에는 [C]처럼 접힌 모서리 부분에 반원이 3개 나타난다. 그래서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를 모두 합하면, 가장 큰 반원의 호 길이인 $2\pi t$ 와 그 반원 속의 작은 반원의 호 길이인 πt , 그리고 처음 접힌 반원의 호 길이인 πt 의 합, 즉 $4\pi t$ 가 된다. 그러므로 종이를 한 방향으로 두 번 접으려면 종이는 최소한 $4\pi t$ 보다는 길어야 한다. 종이를 한 번 더 접었을 뿐이지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 합은 이전보다 훨씬 커진다. 결국, 종이 접는 횟수는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이로 인해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의 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종이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종이를 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보 기> —
한 방향으로 종이를 접을 때, 접는 횟수가 증가하면, 접힌 종이의 넓이는 ㉠, 접힌 종이의 두께는 ㉡,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 합은 ㉢.

- | | | | |
|---|------|-------|------|
| | ㉠ | ㉡ | ㉢ |
| ① | 줄어들고 | 두꺼워지고 | 작아진다 |
| ② | 줄어들고 | 두꺼워지고 | 커진다 |
| ③ | 줄어들고 | 얇아지고 | 커진다 |
| ④ | 늘어나고 | 얇아지고 | 커진다 |
| ⑤ | 늘어나고 | 얇아지고 | 작아진다 |

2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종이를 한 방향으로 세 번 접었을 때 나타난 모습과 확대한 단면이다. 세 번 접은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 합은 $14\pi t(4\pi t+3\pi t+2\pi t+2\pi t+\pi t+\pi t+\pi t)$ 이다.

※ 종이의 두께(t), 종이의 길이(L)는 [A]와 동일함.

- ①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 합은 접힌 두께와 같겠군.
- ②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가 가장 긴 것은 L 보다 길겠군.
- ③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가 πt 인 반원의 수가 가장 적겠군.
- ④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가장 큰 반원의 호 길이는 가장 작은 반원들의 호 길이 합보다 작겠군.
- ⑤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가장 큰 반원의 호 길이는 종이를 두 번 접었을 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 합과 같겠군.

29. ㉠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접는 종이의 두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② 접는 종이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③ 종이를 접는 방법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④ 종이를 접으면서 생기는 모서리의 모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 ⑤ 종이를 접으면서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 낯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B]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
 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C]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
 라난 탓이다

┌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여졌다
 착하다착해서 세관은*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D]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E]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 백석, 「선우*사(膳友辭)」 -

* 나조반: 책상처럼 생긴 장방형의 큰 상.
 * 세관은: '성질이나 기세가 억센'이란 뜻의 평복 방언.
 * 선우: 반찬 친구.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려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3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상승 이미지를, (나)는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인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다.

31.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낯은 나조반'을 중심으로 화자와 '흰밥', '가재미'가 함께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우리들'이라는 시어를 통해 '흰밥', '가재미'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친근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C]에서는 '모래톱', '한벌판', '산골'이라는 공간에서 비롯된 '우리들'의 공통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D]에서 화자는 '없다', '없다'와 같은 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E]에서 화자는 '우리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그릇'은 물을 담고, 음식을 담는 사물을 이르는 말로, 우리와 늘 함께 존재한다. 이 시의 화자에게 어머니의 '그릇'은 평생 자식을 위해 따스한 정성과 사랑의 음식을 담아낸 것으로, 사전적 의미인 '그릇'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그릇'을 보며, 화자는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 ① ㉠: 화자는 어머니가 '그릇'을 자신만의 언어인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군.
- ② ㉡: 화자는 '그릇'이라는 말에 어머니의 따스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고 삶이 녹아있었음을 깨닫고 있군.
- ③ ㉢: 화자는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운 '그릇'과는 달리, '그릇'을 어머니가 삶 속에서 체득한 살아있는 단어라고 보고 있군.
- ④ ㉣: 화자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시어를 쓰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하고 있군.
- ⑤ ㉤: 화자는 삶의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말로 시를 썼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군.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㉔ 얼음 위에 맺인 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인 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망정
- ㉕ 정 나눈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西窓)을 열어보니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㉖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笑春風)하노라 소춘풍하노라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고자 했는데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고자 했는데
우기던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인 외로운 잠자리.
*소춘풍하노라: 봄바람에 웃는구나.

(나)

옛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말해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맨다
부생모육(父生母育) 고생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候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
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요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長安) 유협(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마음 쓰기 ㉗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쩍 지나 조물(造物)이 시샘하여
㉘ 봄바람 가을 물이 배울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하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끊었어도 생각이야 없을쏘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면 좋으련만
㉙ 열두 때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 지리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㉚ 자취눈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 비는 무슨 일이고
㉛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
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㉜ 실슬(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공후배필: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
*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배필.
*월하: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노인.
*천연여질: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설빈화안: 고운 머릿결과 아름다운 얼굴.
*면목가증: 얼굴 생김새가 밋살스러움.
*야유원: 술집.
*백마금편: 호화로운 차림.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공간을 이동하여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34. <보기 1>을 바탕으로 ㉑~㉜을 이해한다고 할 때, <보기 2>에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1>—
고전시가에서 화자는 임이 곁에 있고 없음에 따라 객관적인 시간을 다르게 인식한다. 임이 부재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다고 느끼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임과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져서 그 시간을 지연하고 싶어 한다.

—<보기 2>—
㉑: ㉑은 임과 함께하는 '오늘 밤'이라는 시간을 지연하고 싶은 심리를 담고 있다.
㉒: ㉒에는 임과 함께하기 위해 시간이 '배울에 북 지나듯' 빨리 흐르기를 바라고 있다.
㉓: ㉓에서 화자는 임이 부재하는 시간인 '열두 때', '서른 날'은 길고 지루하다고 느낀다.
㉔: ㉔에서 화자는 임이 곁에 없는 상황이기에 꽃 피고 새 잎 나는 '삼춘화류'의 계절임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 ① ㉑, ㉒ ② ㉑, ㉒ ③ ㉒, ㉔
- ④ ㉑, ㉒, ㉓ ⑤ ㉒, ㉓, ㉔

35. ㉑~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사랑을 강조한 표현이다.
- ② ㉒: 화자의 처지와 비슷하여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③ ㉓: 화자의 조심스러웠던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㉔: 계절과 연결되어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㉜: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이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시골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수시로 횡포를 부리더니, 어느 날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한다. 그러자 부자는 서울 형조에 송사를 제기하지만 친척이 미리 관원들에게 뇌물을 준다. 부자는 결국 재판에 지게 되어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부자 생각하되,

‘내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반드시 관전(官前) 발악(發惡)이라 하여 뒤엎어 잡고 법대로 할 양이면 청 듣고 송사도 지게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무지한 사령 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리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어혈(瘀血)만 될 것이니 어찌할꼬.’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기는 차마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하여 재판관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문득 생각하되,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 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만 하면 무안이나 벼리라.’

하고, 다시 일어서 계단 아래에 가까이 앉으며 하는 말이,

“소인이 천 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옵거니와 들음직한 **이야기** 한 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평소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고로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나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들이 보는 눈이 걱정되는지라. 거짓 꾸짖는 분부로 일러하는 말이,

“네 본디 시골에 있어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로되, 네 원이나 풀어 줄 것이니 무슨 말이고 아뢰어라.”

[중간 부분의 줄거리] 이렇게 시작된 부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피꼬리, 삐죽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최고의 소리라고 다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제기한다. 그런데 소리에 자신이 없었던 따오기는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황새에게 미리 청탁을 한다. 날이 밝아 세 짐승이 황새 앞에서 소리를 시작한다.

피꼬리 먼저 날아들어 소리를 한번 곱게 하고 아뢰되,

“소인은 바야흐로 봄이 한창 화창한 좋은 시절에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앞내의 버들빛은 초록장 드리운 듯, 뒷내의 버들빛은 유록장 드리운 듯, 금빛 같은 이내 몸이 날아들고 떠들면서 흥에 겨워 청아(清雅)하고 옥을 깨뜨릴 만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춘풍결에 흩날리며 봄의 석 달 동안 보낼 적에 뉘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이까.”

황새 한 번 들으매 과연 제 말과 같아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러나 이제 제 소리를 좋다 하면 따오기에게 청 받은 뇌물을 도로 줄 것이요, 좋지 못하다 한즉 내 공정치 못한 판결로 정체가 손상할지라. 반나절이나 깊이 생각한 끝에 판결하여 이르되,

┌ “네 들어라. 당시(唐詩)에 타기황앵아(打起黃鶯兒) 막교
[A] 지상제(莫教枝上啼)*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아름다
└ 우나 애잔하여 쓸데없도다.”

피꼬리 짐승이 물러 나올 새, 또 삐죽새 들어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묘하게 하여 아뢰되,

“소인은 녹수청산(綠水靑山) 깊은 곳에 만학천봉(萬壑千峯) 기이하고 안개 피어 구름 되며, 구름이 걷히고 많은 신기한 봉우리로 별세계가 펼쳐졌는데 만장폭포 흘러내려 수정림을 드리운 듯 송풍(松風)은 소슬하고 오동추야 밝은 달에 이내 소리 만첩청산의 아름다운 새 소리가 되오리니 뉘 아니 반겨하리이까.”

황새 듣고 여러모로 생각해 본 후 판결하되,

“월락자규제(月落子規啼) 초국천일애(楚國千日愛)*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깨끗하나 아주 어려웠던 옛날의 일을 떠올리게 하니, 가히 불쌍하도다.”

하니, 삐죽새 또한 부끄러워하며 물러나거늘, 그제야 따오기가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저보다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어찌할꼬 하며 차마 남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그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 고개를 나직이 하여 한번 소리를 주하며 아뢰되,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윽고 달리 풀쳐 고향 일 없사오니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나이다.”

하되, 황새놈이 그 소리를 듣고 두 무릎을 탕탕 치며 좋아하며 이른 말이,

“쾌재(快哉)며 장자(長者)로다. 화난 감정이 일시에 터져나와서 큰 소리로 꾸짖음은 옛날 황장군(黃將軍)의 위풍이요, 장관교(長坂橋) 다리 위에 백만 군병 물리치던 장익덕의 호통이로소이다.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하고,

“이렇듯이 처결하여 따옥성을 상성(上聲)으로 처결하여 주오니, 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즉 잘못 판결하여 그 피꼬리와 삐죽새에게 못할 노릇 하였으니 어찌 화가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 하오리이까. 이러하온 짐승들도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 하기로 그놈을 개아들 개자식이라 하였으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하니, 형조 관원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 작자 미상, 「황새결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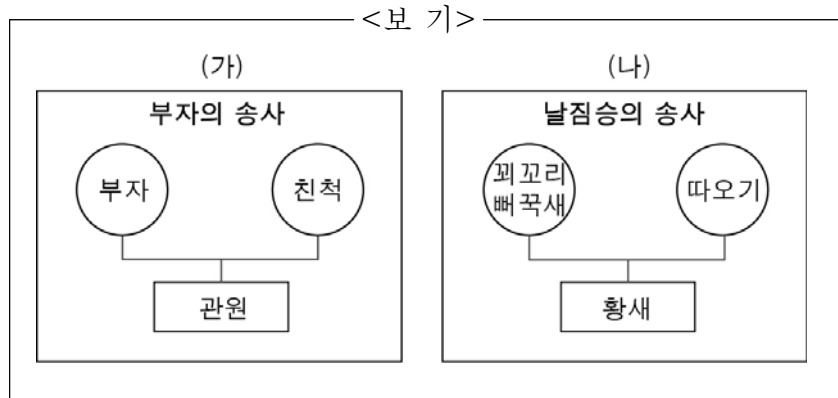
* 타기황앵아 막교지상제: ‘피꼬리를 날려 보내어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마라.’는 뜻으로 전쟁으로 헤어진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담고 있음.

* 월락자규제 초국천일애: ‘달이 지고 두견이 우니 초나라 천일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암시함.

3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자’는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였군.
- ②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군.
- ③ ‘황새’는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송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군.
- ④ ‘따오기’는 자기 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황새’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군.
- ⑤ ‘피꼬리’는 자신의 소리를 누구든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군.

37. 밑글에 나타난 송사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친척의 부당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 ②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
- ③ (가)의 결과는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재산’이고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 ⑤ (가)와 (나) 모두 청탁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8. ‘부자’가 [이야기]를 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원들에게 다른 송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 ② 무식한 관원에게 자신의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 ③ 비리와 관련된 관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 ④ 예상과 다른 판결에 대해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 ⑤ 자신의 패배로 끝난 송사로 인해 잃게 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39. [A]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한다고 할 때,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황새는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각주구검(刻舟求劍)
- ④ 배은망덕(背恩忘德)
-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보씨는 친구 H의 결혼식에 가면서 문득, 이례적으로, 부조금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별안간, 그러면 대체 소설이 무얼까, 소설가란 무얼까, 하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보씨는 참 우스운 사람이다. 물론, 그 순간, 골목길에 멈춰선 구보씨도 스스로가 우습다는 생각을 했다.

소설가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니까, 하고 구보씨는 스스로에게 대답해보았다. 밑도 끝도 없이. 정말 그런 걸까. 구보씨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인가. 그래서 친구 결혼식에 부조금도 못 낸단, 아니 안 낸단 말인가. 그러면 성공하면 낸다는 말인가. 성공한다는 게 뭐냐. 소설가도 성공할 수 있는 건가. 구보씨 스스로 소설가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성공하면 이미 소설가가 아니지 않는가. 그 ‘성공’이라는 말이 ‘소설에 관한 한 성공’이라면 모르되 말이다. 소설에 관한 한 성공은 곧 세상에서의 더 큰 실패가 아닐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소설가로선 실패하는 것이다.

(중략)

“어이, 구보 아냐. 오래간만인데.”

K였다. 대학 동기다. 구보씨는 명칭한 표정으로 그와 악수했다.

“소설 쓴다며? 너밖에 없구나. 난 학교 때도 그놈의 문학은 영 모르겠더라구. 학과 선택에 실패했나봐, 난. 그래서 취직했지.”

K는 웬일인지 호들갑스러웠다. 구보씨는 말을 잇은 듯 K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다. K가 너무 이질적으로 보였다. 하긴 K도 구보씨를 이질적으로 보고 있었겠지만. 구보씨가 아무 말이 없자 K는 계속 혼자 말해야 했다.

“너 소설 쓰느라 피곤한 모양이구나. 돈은 좀 벌리냐? 소설을 돈 벌라고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먹구는 살아야지.”

“조금. 5.16 이후에 어디 조선 땅에서 굶어죽은 사람이 있었니.”

구보씨가 대답했다. 그의 첫마디였다.

“그래. 어쨌든 한국 자본주의가 많이 컸어.”

① K는 구보씨가 비꼬아서 말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K가 무슨 죄가 있으랴. 비꼬는 구보씨가 나쁘지.

“그런데, H 이 자식, 돈 좀 벌었나보더라.”

“돈?”

K의 말인즉슨, H의 출판사에서 낸 책이 요즘 장안의 지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였다. 돈 벌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던가 이렇게 살면 돈 번다, 라던가 아무튼 그런 책인데, 성공한 자본가들의 체험담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구보씨도 그런 책이 있다는 소릴 들은 것도 같았다. 그 책이 잘 팔린단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돈을 벌다니. 돈 번 사람들의 이야기로 돈을 벌다니. 책이라는 게 뭐냐. 글을 쓴다는 건 또 뭐냐. 요즘 사람들이 대재벌 총수들이 쓴 책을 즐겨 사 본다. 이 시대의 진정한 문필가는 성공한 대자본가인 것 같다. 소설가나 시인이 쓴 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밤낮 뭐가 잘 안 되는 이야기나 써놓은 책을 볼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

나보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 성공의 척도는 돈이다. 모두 돈을 벌고 싶으니까 돈 번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를 얼마나 착취했건, 독재 정권과 얼마나 추악한 거래를 했건, 부동산 투자를 얼마나 했건,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도덕이니 정의니 가치니 이런 말들은 듣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다.

“돈 좀 버니까 사람들 꼬이는 거 봐라.”

K가 말했다. 구보씨는 그제서야 다시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는 식당 쪽을 바라보았다.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짝 차 있었다.

“친구들은 많이 왔지?”

구보씨가 물었다.

“많이 왔더라.”

“어떻게 지낸단디?”

“뭐, 다 그렇지.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넌 뭐하니?”

“㉠ 보험. 증권은 한물갔잖아. 그 다음은 보험이야.”

“그래?”

“결혼식이 다 끝났나보다. 가서 사진이나 찍자.”

“먼저 가. 나는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지.”

K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구보씨는 담배를 한 대 피워물었다. 구보씨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빌어먹을. H가 돈을 벌었다네. 돈을 벌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던가 이렇게 살면 돈을 번다, 라던가 하는 책을 만들었다네. ㉡ 그래서 결혼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꼬여든 거라네. 오지 말걸. 이제 다시는 사람 많이 모이는, 꼬여드는 곳엔 가지 말아야지.

구보씨는 담배를 끄고 결혼식장을 나가려다 그만 멈춰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 H의 모습을 보고 싶어졌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란 말은 항상 사람을 비장하게 만든다. 구보씨는 비장하게 결혼식장 입구로 걸어갔다. 그는 문밖에 섰 채로 뻔뻔히 안을 들여다보았다. H가 보였다. H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네가 나와 함께 군부 독재와 독점 재벌을 타도하자던 H냐. ㉢ 구보씨가 서 있는 입구와 H가 서 있는 자리 사이에는 울긋불긋한 주단이 깔려 있었다. 구보씨는 그 주단을 밟고 뛰쳐나가 H의 멱살을 잡고 그 웃는 얼굴에다 대고 그렇게 묻고 싶었다. 그러나 구보씨는 그러지 못했다. 그 대신 구보씨는 H의 얼굴과 그 주변에 늘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역시 웃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아두었다. 대체로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 구보씨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두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기 위해.

- 주인석, 「사잇길로 접어든 역사-소설가 구보씨의 하루2」 -

40.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② 장면 변화에 따른 인물의 심리가 암시된다.
 - ③ 서술자가 교체되어 사건을 심층적으로 제시한다.
 - ④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긴장감을 고조한다.
 - 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4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보는 K를 통해 H의 근황에 대해 듣게 된다.
- ② K와 구보는 오랜만에 H의 결혼식장에서 만난다.
- ③ 구보는 H가 돈을 벌었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 ④ K는 H의 출판사에서 낸 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 ⑤ K는 H가 책으로 성공을 해서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한다.

42. <보기>는 윗글의 창작 동기가 된 소설의 일부이다. <보기>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해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 광무소: 광산 회사의 사무실.

- ① <보기>와 [B] 모두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당당히 맞서는 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 ② <보기>와 [B] 모두 문인들이 현실 타협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 ③ <보기>와 [B] 모두 자본가에 밀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문인들의 고민이 나타나 있다.
- ④ <보기>에는 문인들조차 돈을 좇는 현실이, [B]에는 돈을 추구하는 세태로 인해 소설가의 글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 있다.
- ⑤ <보기>에는 문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이유가, [B]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소설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부각되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K가 구보가 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K의 세속적 면모가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H의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한 구보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④ ㉣에는 과거와 달라진 H와 그를 바라보는 구보 사이의 거리감이 나타나 있다.
- ⑤ ㉤에는 친구들과 감정을 교류하며 살아야겠다는 구보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위조지폐를 만드는 가족(사장, 사원 갑, 사원 을, 사원 병)이 빌딩에 유명 회사를 차려 놓고, 누명을 써서 전과자가 된 청년을 사원으로 채용한다. 청년은 한 달 치 월급으로 받은 위조지폐로 양복을 구입하다 사복형사에게 잡혀 사무실로 끌려오게 된다.

청년 : 오! 사장님!
사복 : 선생이 간편무역 사장입니까?
청년 :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장 : 잘못 아시고 오신 모양이군.
사원 갑 : 용산서에서 오셨어요.
사장 : 나한테? 무슨 일로?
사복 : 이 남자가 선생 회사에 취직했다는데요.
사장 : 천만에! 대체 누구입니까? 이 남자는 난 생면부지올시다.

청년 : 아닙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 사원이에요, 사장님. [A]

사복 : (뺨을 갈기며) 인마, 아직도 거짓말이야, 응? [A]

청년 : 아네요. 나으리는 몰라요, 나으린. 아씨, 아씨!
아씨가 아십니다. 회계과장이 한 달 월급을 선불해 주시고, 양복을 사 입으라고 달려 지폐를 주셨어요.

사복 : 인마, 떠들지 마라. 글썽 이 미련한 친구가 누굴 속여 보겠다고 백 불짜리 지폐를 위조해 가지고 백주에 서울 네거리를 횡행합니다그려. 헛헛..... 그래서 월급을 받았다? (머리를 갈기며) 인마, 뭐 양복을 짓겠다고? 가짜 돈을 찍으려면 남이 봐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진짜 백 불짜린 구경도 못했을 자식이. 가자, 인마. 실례 많았습니다. [B]

사장 : 원 천만이에요.

청년 : 사장님, 나으리! 제겐 아무 죄도 없어요. 제발, 미련은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이구 그 지긋지긋한 감옥살일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이러시길. 사장님! 구두도 사서 친구 양복도 새로 맞추고 추천서도 일없고 신원보증도 일없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장님! 아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씨를. 아씨는 거짓말을 안 하실 겁니다. 아씨! 아씨!

사복 : 인마, 떠들지 마라, 가자! (억지로 끌고 나간다.) [C]

청년 : (복도로 해서 오른쪽으로 끌려가며) 사장님!
왜 제게 취직자리를 줬어요? 취직만 안 했더라면 감옥에도 안 가고..... 감옥엘, 감옥엘.....
저 사장님..... 너무합니다. 사장님! [C]

사장과 사원 갑은 사장실로, 사원 정은 복도로 가서 청년이 간 뒤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사장 : 결국 또 실패지. 이번엔 얼마나 찍었더냐?

사원 갑 : 시험 삼아 3백 장만 찍었어요.

사장 : 흥, 3만 불이로구나. (지갑에서 진짜를 꺼내 대조하며) 어디가 다른가 좀 자세히 보아라. [D]

사원 갑 : 도안이 좀 이상하다 했더니만. [D]

사원 병 : 도안이 아네요, 형님. 인쇄 잉크가 달라요.

사원 을 : 잉크가 어떻다고 그래, 종이가 틀리는걸 뭐.

사원 갑 : 종이야 할 수 없지. 미국을 간다고 같은 종이를 사겠니.

사원 병 : 아네요, 잉크예요. [E]

사원 을 : 종이야.

사원 갑 : 도안이 틀렸어.

사원 병 : 잉크가 아니라니깐.

사원 을 : 잉크가 어쨌단 말야. 네가 도안을 잘못 그려놓곤.

사원 병 : 도안이 어디가 틀렸어!

사장 : 애들아, 떠들지 마라. 그 미련한 녀석 때문에 단단히 손해 봤다.

사원 병 : 참 그 자식 때문이야.

사원 갑 : 첫눈에도 자식이 좀 모자라는 것 같더니만. - 오영진, 「정직한 사기한」 -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복’은 ‘청년’보다는 ‘사장’의 말을 신뢰한다.
- ② ‘청년’은 자신의 결백함을 ‘아씨’가 밝혀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③ ‘사장’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복’ 앞에서 ‘청년’을 모른 채한다.
- ④ ‘사장’은 잡혀 온 ‘청년’을 통해 지폐를 위조하는 데 실패했음을 확인한다.
- ⑤ ‘사원 갑’과 ‘사원 병’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사복’에게 붙잡힌 ‘청년’을 동정한다.

45. [A]~[E]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단막극인 이 작품은 무대 공간이 회사 안으로 제한된다. 무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로 이야기가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무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직 인물의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 ① [A] : 사복이 청년의 뺨을 때리고 의견을 묵살하는 일
- ② [B] : 청년이 백 불짜리 위조지폐로 양복을 구매하려는 일
- ③ [C] : 사복이 청년을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일
- ④ [D] : 사장이 진짜 지폐를 꺼내 사원들에게 대조시키는 일
- ⑤ [E] : 사원들이 위조지폐의 조잡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